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확대

임실군, 기존 제외 대상자 포함 보훈수당 확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임실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군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함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기존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상이등급 7급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훈수당을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부상자 및 그 대상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순직군경의 배우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 및 유가족, 전몰군경 유자녀 등으로 확대됐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월 8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기존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보훈처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과 고

엽제 후유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 달 제2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10월 15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된다.

수당의 신청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국가유공자증과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제42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 개최

가는 오색 단풍길 걷기·보물찾기·천년송 소원빌기 등 프로그램 다채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에서는 오는 19일 제42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가 지리산국립공원 반선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지리산 뱀사골 단풍은 14일 노고단 상부에서 시작, 26일 전후로 절정에 다들 것으로 보이며, 11월 초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산내면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남원시와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에서 후원해 열리는 이번 단풍축제는 산내면 농약단의 터울림을 시작으로, 개막

퍼포먼스를 비롯해 천년송으로 가는 오색 단풍길 걷기행사, 보물찾기, 천년송 소원빌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연계행사로 산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꿀, 고사리, 오미자, 산채류 등 농특산품이 판매될 예정으로 남원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듯하다. 특히, 행사장에서 지리산 천년송까지 이르는 약 2.5km의 뱀사골 단풍길 걷기 행사는 지리산 천

혜의 비경과 뱀사골 단풍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낄 수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보다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다채로운 공연행사로, 산내면 실상사 작은학교 아이들의 북소리 공연과 흥성밴드, 버스킹, 바이올린, 지리산 아재밴드와 함께하는 단풍음악회가 진행되며, 강혜원, 박상봉이 초대가수로 참여하는 지리산 단풍 노래자랑도 열린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콩 종자산업 메카로 거듭난다

선발된 신품종 지역 적응성 높아

순창군이 최근 순창 콩 개발 연차보고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해 서울대학교와 종자산업 콩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및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콩 신품종 개발 시작한다 따른 것으로 올해 3월부터 공동연구에 들어간 이후 첫 번째로 갖는 보고회다.

콩 개발은 기존의 대원콩이 재배안정성과 탈립성이 우수하지만 기계 수확시 손실률이 많아서 다수확에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시작했다. 이에 올해 양 측은 기계 수확형 다수확 품종을 개발을 위해 우수 교배조합을 작성하고 지역 실증 검정을 공동 노력한 결과, 착합 위치가 높아 기계 수확성이 뛰어난 다수확 품종을 1차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신품종은 2모작 지대의 평야지 및 산간지에 알맞은 품종으로 지역 적응성이 높아서 서리 및

한발 피해 우려가 없는 품종이다. 또한 기계화 재배와 장류 가공적성이 우수한 한편 콤팩트 수확에 적합한 내도복, 내탈립, 내손상 및 경·협 등 시 등숙 특성도 갖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대원콩이 가진 환경내성을 가진 교배 조합도 함께 시험하여 더 뛰어난 순창 콩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은 지역 특화를 위해서 지역 맞춤형 종자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 둔다는 농촌과 순창군 장류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양 기관이 협력하여 순창군 100년 먹거리의 핵심 소재의 종자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나아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콩 품종 개발을 통하여 케이씨드(K-seed)의 파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시가지 교량 내진 보강

남원시가 지진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가지 요천 내 교량 2개소(남원대교, 동림교)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량상판을 받치고 있는 교좌장치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내진성능이 검증된 탄성받침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남원시 시가지 주요 교량은 요천에 위치한 4개소(남원대교, 동림교, 춘향교, 승사교)로, 내진보강사업이 완료된 교량은승사교, 춘향교 등 2개소이며, 이번에 남원대교와 동림교의 내진보강 사업으로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블루베리 꼬냑' 개발에 나서며, 주류시장 공략에 나선다.

순창, 명품 주(酒) 개발 본격 추진

고품격 방식 제조 '블루베리 꼬냑' 내년 하반기 상품화

소스의 고장 순창군이 '블루베리 꼬냑' 개발에 나서며, 주류시장 공략에 나선다. 군은 지난 9월부터 '블루베리 꼬냑' 개발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는 상품화를 성공시킨다는 전략이다.

과수를 이용한 와인이나 과일주 등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고급형 주류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후발주자로 현재의 보급형 주류시장에 뛰어들어 성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외국 기업 브랜드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고급주류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순창군의 강점인 발효기술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으로 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토착 발효미생물(효모균-SRCM100587)을 활용한 와인 발효기술과 다단식 증류제조시설을 갖추고 알코올함량 80%의 고순도 알코올생산과, 알코올 회수율 80%에 이르는 표준공정을 확

립해 이번 꼬냑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킬 계획이다.

또한 원료 공급 과정에서 주된 원료로 쓰일 블루베리도 관내 지역에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제품 생산체계를 확립해 농가 소득보장에 일조하며 지역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1차 숙성 시제품에 대해서 오는 18일부터 개최되는 '순창장류 축제' 기간 동안 시음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시음회 기간 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순창명품 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홍보부터 디자인 및 상품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나선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과거에도 누룩공장이 들어설 만큼 전통주 제조에 일가견이 있었다"면서 "이번 블루베리 꼬냑을 개발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 주교장이라는 명성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이야기

남원시, 남원 가야유적 현장 탐방

남원시는 16일 5·6급 공직자들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남원 가야의 발자취를 더듬는 현장탐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남원시 공무원들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남원가야를 보다 알기 위해 40여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에서는 곡장군 군산대 교수(가야문화연구소 소장)로부터 1500여년전 운봉고원 일대에서 화려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남원가야의 역사적 위상과 역할, 문화유산 등에 대해 특강을 들었다.

또한 운봉읍 장교리 말무덤,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백두대간 치제 봉수왕국 전북가야비 현장탐방을 통해 남원가야유적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의 티벳 고원으로 불리는 운봉 고원에는 고분군, 제철유적, 산성, 봉수 200개소가 넘는 남원가야의 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2018년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되고, 이어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화려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남원 운봉가야 고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통해 전북가야가 바르게 복원되는 역사가 되살아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 민 임실군수, 특례화 법제화 추진

심 민 임실군수가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심 군수는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개최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법제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는 데 적극 앞장섰다.

이번 창립총회는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는 전국 24개군이 뜻을 모아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해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류한우 단양군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향후 특례군 지정을 위해 특례군 입법 촉구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벌일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임실군을 비롯하여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등 5개 군이 참여했다.

심 민 군수는 "특례군 지정은 소멸 위기의 농촌 소도시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나서

남원시는 16일 백두대간 트리하우스에서 담당공무원 및 민간 복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관이 상호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통합사례관리는 한 개인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변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현재 2,316건의 사례관리와 2,261건의 서비스연계를 지원했다.

교육에 참여한 담당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좋은 방안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